

## HEADLINE NEWS

### 시민중심의 도시계획 위해 주민 생활 욕구조사 실시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시민중심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주민생활 욕구조사(Lifestyle Survey)를 현재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시계획국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주거, 위락 및 일상의 욕구를 연령대별로 파악하고, 이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한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35세 이상의 거주자나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3단계에서는 1단계 조사를 토대로 해, 1단계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주거 및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 주거지 선택의 고려사항, 이사를 가고 싶은 동네, 평상시의 여가활동, 인근에 위치하기를 바라는 위락시설 등 총 43개 항목이 조사되고 있다.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시되고 있다.

([www.ura.gov.sg](http://www.ura.gov.sg))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수도권 공장 및 대학입지 제한제도 폐지 (동경)
- ② 대중교통망 결집·공원 조성 등 「2020년 도심개발 계획안」 마련 (시카고)

### 도시환경

- ③ 「노상흡연 금지」 조례 시행 (동경: 치요다區)
- ④ 고비용·저효율로 인해 플라스틱 및 유리 분리수거 잠정 중단 (뉴욕)

### 도시교통

- ⑤ 원활한 교통흐름 위해 Digital Timer 및 Navigation 시스템 설치 (방콕)
- ⑥ 대중교통 발전방안 담은 「교통백서」 중국 최초로 발간 (상해)
- ⑦ 버스에 카메라 및 GPS 설치해 버스운영 효율성 제고 (미국: 라피엣市)
- ⑧ 승객 유치 위해 버스정류장 및 안내표지판 개선 칸자스시티

### 사회복지

- ⑨ 도심 강변에 간이 해변 조성해 시민들의 여름 휴가지로 활용 (파리)
- ⑩ 아동보육 전문가 및 부모들을 위한 「조기교육지원센터」 개관 (시카고)
- ⑪ 흡연인구 줄이기 위해 市담배세 대폭 인상 (뉴욕)

### 행.재정

- ⑫ 市長-시민이 시정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런치 미팅」 월 1회 실시 (요코하마)
- ⑬ 주요시책 결정 전에 주민 의견 듣는 「퍼블릭코멘트」 제도 도입 (동경: 신주쿠區)

### ① 수도권 공장 및 대학입지 제한제도 폐지 (동경)

일본에서는 「수도권정비법」과 「근기권정비법」 개정안이 200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및 수도권 주변지역(근기권)의 기성시가지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및 대학을 증설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東京都는 현재 산·학·연 협동 촉진을 위해 신산업의 육성 등을 도시 재생과 연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공장 및 대학입지 제한제도는 수도권에서는 1959년에, 수도권 주변지역에서는 1964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東京都 區部에 연간 20만명이 넘는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 정체 및 주거환경 악화가 초래됨에 따라, 인구증가의 2대 요인이었던 공장과 대학의 입지를 규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만들어진 지 약 40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않게 되었다.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중국 등지로 생산거점이 빠른 속도로 이전되어, 공장입지건수도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비해 1/6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학 또한 분교화로 인해 지방대학으로의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시가지의 대학생수가 전체 대비 1960년 46.1%에서 2000년 19.5%로, 수도권 주변지역에서는 15.6%에서 7.9%로 각각 줄어들었다.

(日本經濟新聞, 7. 8)

### ② 대중교통망 결집·공원 조성 등 「2020년 도심개발 계획안」 마련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 도시계획당국은 4,000만제곱피트(약 1,124,000평) 규모의 오피스 빌딩을 조성하고, 6만명의 거주자를 새롭게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도심개발 계획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계획안에는 도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준을 향상시키고, 84에이커(약 102,833평)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대중교통계획의 핵심은 Clinton가(街)에 4단계의 대중교통망을 결집시키는 데 있다. 즉, 주요 통근철도역을 급행버스노선과 연결시켜 광역 및 지선 운송체계를 갖추고, 동시에 지하철 노선망과 고속철도망을 연계시켜 통근철도-급행버스-지하철-급행철도를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대중교통노선의 연장 운행도 고려중이다.

또한, 이번 도심개발 계획안은 시카고를 ‘미국내 최고의 녹색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공원을 건설하는 사업도 포함한다. 市는 이 도심개발 계획이 시행될 경우 7,550억 달러 규모의 건설사업이 새로이 시작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며, 세수(稅收)가 약 27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 2년간 운영된 市당국의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했으며, 앞으로 3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www.chicagobusiness.com/cgi-bin/news.pl?id=5866](http://www.chicagobusiness.com/cgi-bin/news.pl?id=5866))

### ③ 「노상흡연 금지」 조례 시행 (동경: 치요다區)

일본 東京都 치요다(千代田)구는 특정구역에서의 노상·보행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區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 6월 24일 이 조례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위해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6월 24일 처음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포스터·표어 공모 및 홍보캠페인 전개방안 등을 검토한 후, 앞으로 「노상흡연 금지」 조례를 마을회의 및 상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6월 말과 7월 초 東京驛 등 區內 주요 전철역에서 가두 홍보를 했으며, 區內 기업에 대해서는 노상흡연 금지에 관한 사원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노상흡연 금지」 조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미다 및 유쿠스리마찌驛 주변 등 7개 지구가 ‘환경미화 모델지구’로 지정되어 노상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만엔 이하의 과태료 및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日本經濟新聞, 6. 25)

### ④ 고비용·저효율로 인해 플라스틱 및 유리 분리수거 잠정 중단 (뉴욕)

미국 뉴욕市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종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의 재활용정책이 비용·편익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플라스틱은 2002년 7월 1부터 1년간, 유리는 2002년 7월 1일부터 2년간 분리수거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市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플라스틱과 유리의 경우 분리수거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분리수거를 해도 1/2 정도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재활용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市는 플라스틱병 및 유리병 제품이 판매될 때 보관료가 5센트씩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수거하지 않아도 상당부분은 일반 슈퍼마켓을 통해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분리수거 중단 조치로 매년 4천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市는 이러한 분리수거 중단 조치와 더불어 「리사이클링개선특별팀」을 설치해 가장 효율적인 리사이클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The New York Times, 6. 20) ([www.nyc.gov/html/om/html/2002b/pr171-02.html](http://www.nyc.gov/html/om/html/2002b/pr171-02.html))

### 5 원할한 교통흐름 위해 Digital Timer 및 Navigation 시스템 설치 (방콕)

태국 방콕市 교통당국은 방콕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첨단교통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녹색 혹은 적색 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디지털 타이머(Digital Timer)'를 교차로에 설치해 운전자가 다음 신호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반응시간에 의한 교차로 지체를 최소화했다.

또한, 운전자가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Navigation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휴대용 컴퓨터 혹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가지 지도뿐만 아니라 주요관광지 정보, 특정 도로구간에서의 주행가능속도 등을 제공해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市는 방콕 시내 25km<sup>2</sup>의 시범지역을 설정, 내년 4월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적지별 최단거리를 안내해주는 표지판을 포함, 12,000개의 교통안내표지판이 시내 곳곳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www.bangkokpost.com/020702\\_News/02Jul2002\\_news10.html](http://www.bangkokpost.com/020702_News/02Jul2002_news10.html))

### 6 대중교통 발전방안 담은 「교통백서」 중국 최초로 발간 (상해)

중국 상해市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교통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내 대중교통기관 확충 등 교통문제 관련 중장기계획도 담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市는 2005년까지 시내 거주자들의 집에서 약 300m 범위 내에 대중교통수단의 역과 정류장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평균 통근시간을 현재의 62분에서 55분으로 단축시키고, 2005년까지 지하철 및 고가철도 등의 신설을 촉진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의 발전방안을 담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6. 24)

### 7 버스에 카메라 및 GPS 설치해 버스운영 효율성 제고 (미국: 라피엣市)

미국 인디애나주 라피엣(Lafayette)市는 버스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록을 위해 버스 내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버스마다 GPS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인 카메라는 버스손상 행위나 교통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외선 스캐너를 이용해 정류장별 승하차 승객수를 파악하고, 이를 버스노선 계획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GPS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정확한 버스위치 파악이 가능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주요 교차로 통과시 자동적으로 안내방송을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버스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lafayettejc.com/news20020516/200205162local\\_news1021525517.shtml](http://www.lafayettejc.com/news20020516/200205162local_news1021525517.shtml))

### 8 승객 유치 위해 버스정류장 및 안내표지판 개선 (캔자스시티)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 교통계획기구인 'Kansas City Area Transportation Authority'는 버스정류장의 미관 개선 및 버스안내판의 개선을 통해 버스승객의 유치를 도모하는 버스정류장 개선계획을 2002년도 9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버스안내표지판은 다른 안내판과 식별이 쉽도록 하고, 운행버스와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색깔로 꾸며진다.

또한, 버스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표기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선이 집중되는 버스정류장에는 노선도와 운행시간표를 부착해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지붕의 도색을 다시 하고, 조명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깨끗한 정류장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www.kansascity.com/mld/kansascity/news/local/3504967.htm](http://www.kansascity.com/mld/kansascity/news/local/3504967.htm))

## 9 도심 강변에 ‘간이 해변’ 조성해 시민들의 여름 휴가지로 활용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3km에 달하는 센강변로의 북쪽 지점에 ‘간이 해변’을 조성해 시민들이 여름 휴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市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심 한가운데를 해변 분위기로 가꿈으로써 시민들이 이 곳에서 체육 및 문화행사를 열거나,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뿔러리 강변에서 앙리4세 강변에 이르기까지 모래사장, 잔디밭, 종려나무 숲 등이 조성되고, 파라솔, 간이식당, 접의자, 자전거 및 인라인 스케이트 수리센터, 관광안내소, 탈의실 등이 설치되었다.

([www.paris-france.org/parisweb/fr/vivre/ETEAPARIS02/parisplage.htm](http://www.paris-france.org/parisweb/fr/vivre/ETEAPARIS02/parisplage.htm))

## 10 아동보육 전문가 및 부모들을 위한 「조기교육지원센터」 개관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아동보육 전문가 및 일반 부모들을 위한 「조기교육지원센터」를 최근 개관했다. 이 센터에서는 8세 미만의 영·유아 조기교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갖추고 있으며, 보육전문가뿐 아니라 비전문가인 부모들을 위한 기초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 글자 가르치기 등 다양한 내용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대출해주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15대의 컴퓨터를 갖추고 있으며, 컴퓨터 교육도 실시한다. 보육전문가들은 교과과정 계획, 프로그램 관리·평가 등과 관련된 전문자료도 얻을 수 있고, 회의나 단체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센터는 市와 일리노이대학, 시카고시립대학이 함께 운영하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www.ci.chi.il.us/HumanServices/sub/chicago\\_center\\_early\\_edu.html](http://www.ci.chi.il.us/HumanServices/sub/chicago_center_early_edu.html))

### ④ 흡연인구 줄이기 위해 市담배세 대폭 인상 (뉴욕)

미국 뉴욕市는 시민 건강을 위해 2002년 7월 1일부터 담배 한 갑에 8센트하던 市담배세를 대폭 인상해 한 갑에 1.5달러씩 부과하기로 했다. 市보건국은 이번 담배세 인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3만 3천명 이상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세를 22% 인상할 경우 청소년 흡연을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뉴욕에 적용할 경우 7만명의 흡연인구를 줄이고, 2만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市는 담배세 인상으로 市세입이 증대되어 48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ww.nyc.gov/html/om/html/2002a/pr170-02.html](http://www.nyc.gov/html/om/html/2002a/pr170-02.html))

### ④ 市長-시민이 시정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런치 미팅」 월 1회 실시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市長과 시민그룹이 시장실에서 점심으로 카레라이스를 먹으며 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런치 미팅」이 2002년 6월 24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처음 열린 「런치 미팅」은 노인자립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빛」 회원 10명이 참가했다. 이 단체는 「런치 미팅」을 신청한 88개팀 중에서 추첨을 통해 「런치 미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비공개로 약 50분간 市長과 대화를 나누었다. 앞으로 「런치 미팅」은 월 1회 진행될 예정이다. (東京新聞, 6. 25)



### 주요시책 결정 전에 주민 의견 듣는 「퍼블릭코멘트」 제도 도입 (동경: 신주쿠區)

일본 東京都 신주쿠(新宿)구는 2002년 7월부터 주요시책의 결정 전에 區民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 제도를 도입했다. 都內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지난 1996년 區가 수립한 「열린 구정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예전에도 공청회나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區의 시책에 관해 區民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는 다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시스템화한 것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區政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區政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區民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은 區의 종합시책에 관한 계획, 각 행정 부문 시책의 기본방침 및 계획 분야이며, 區內 거주자, 통근자, 통학자, 區內 사업자·단체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區는 시책의 초안을 區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다음, 2주 이상 區民의 의견을 모집하게 된다. 區民의견 모집 기간이 끝나면, 區는 區民들의 의견을 기초로 안을 확정하고, 동시에 區民들의 의견도 공표하게 된다. 區는 금년도에는 재무행정 개혁안 수립 등에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주니치신문, 7. 4)